

제5장

행복지수의 개발 -지표체계 구성안-

황명진 · 심수진

제1절 서론

1. 연구 배경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증가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더불어 정신적인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 하버드 대학의 최고 인기강좌는 벤·사하르 교수의 ‘행복론(긍정심리학)’으로, 전체 6,500명 학부생의 13%인 855명이 수강하여(한국일보, 2006.3.13) 행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한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회제도적 환경이나 현황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과 현황은 객관적으로 그 사회를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그러한 사회제도적 환경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이나 만족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GDP는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경제적 능력과 더불어 복지수준이나 삶의 질 등도 국가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중요성을 바탕으로 세계 각 국가 또는 국제연구들에서는 사회지표의 체계를 개발하고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 그것의 정의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보통 행복과 삶의 질, 주관적 만족감, 웰빙 등은 동일한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취급된다(Veenhoven, 2007; Donnelly, 2004). 이의 측정에 있어서는 경제나 삶의 질 측면을 중요시하기도 하고(UNDP, 2006; EIU, 2005),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고(Marks et al., 2006), 주관적 느낌을 강조하는 연구(Rothwell & Cohen, 2003; Diener et al., 1985)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지표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다. 즉,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소득이 높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기존의 조사결과를 보면 모든 국가가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소득에 비해 행복한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높은 국민소득에 비해 행복한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국가도 있다(Osberg, 2004). 즉, 소득증가나 다른 물질적인 지표들이 행복의 절대적 요소가 아니며, 행복의 측정을 위해서는 여러 사회문화적 지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따라서 삶의 만족과 행복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며 정교하고 비교 가능한 측정이 필요하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행복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목적

행복과 관련된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측정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행복에 대한 정의와 측정이 쉽지 않아서(Lambert, 2005) 현재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

기존의 삶의 질 지표와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체계는 모든 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이지 않다. 객관적 평가 위주의 지표들은 개개인의 행복이

나 삶의 질보다는 경제나 사회환경에 대한 수치 위주로 평가되고, 주관적 평가 위주의 지표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방식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Kahneman & Krueger, 2006). 또한 각 사회마다 경제발전의 정도가 틀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비교에 있어서 각 조사별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즉, 기존 연구들의 경우 한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사회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행복지수 지표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지수개발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앞으로의 행복지수 개발과정에 있어서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행복지수의 지표 개발 가능성이다. 즉, 국가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체계적인 행복지수 지표 개발의 가능성 검토를 연구 목표로 한다. 따라서 행복지수 지표구성의 체계를 토대로 하여 기존 지표의 활용 가능성과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지표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행복지수 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라 할 수 있다.

3.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은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삶의 질 지수 또는 행복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지표구성의 특징과 장단점, 문제점 등을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행복지수의 측정 지표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문헌검토를 통해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행복의 측정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 영역들을 검토한 후 가장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영역을 구성한다. 둘째, ‘한국의 사회지표’ 적용 가능성을 기존 문헌들을 토대로 알아본다. 셋째, 행복지수의 영역 구성 후 각 영역에 포함되어 행복을 측정하게 될 지표를 구성한다.

지표의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며,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위주로 구성하고자 한다. 넷째, 지표들의 타당도 검토를 위해서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정기준 이하의 지표 삭제와 주로 언급되는 지표 추가 등의 과정을 통해 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행복지수 지표 개발의 가능성과 지표구성에 있어서의 한계점 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고찰

1. 행복의 개념

행복은 사전적 의미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심신육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 등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그러나 행복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Veenhoven, 2007), 행복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행복은 개인의 전체 삶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과 평가로 정의되기도 하며(Diener, 2007; Dolan, 2007; 현경자, 2004), 웰빙 또는 삶의 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Veenhoven, 2007; Donnelly, 2004). BBC 행복위원회 의원인 리처드 리브스에 따르면 “행복한 삶은 지극한 만족감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 행복한 삶은 비극, 도전, 불행, 실패, 그리고 후회까지도 모두 껴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불행해질 수도,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행복을 설명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재인용). 즉, 뚜렷한 정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개인의 기대수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에 대해 학자들은 행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Diener, 1984; Diener & Emmons, 1985). 하나는 객관적인 차원으로 삶의 다양한 물리적 구성요소, 즉 의식주, 건강, 성별, 연령, 소득, 교육, 보건, 여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되는 삶의 물질적 조건을 의미한

다. 다른 하나는 흔히 안녕감(well-being)이라고 불리는 주관적인 차원으로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성취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의 부재 등 주관적 평가 및 인지상태를 의미한다.

즉,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삶의 조건, 주관적 감정, 만족감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웰빙 또는 삶의 질과 유사한 의미로 볼 것이며, 삶의 물질적 조건과 더불어 개인들의 만족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행복과 삶의 질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서 삶의 질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2. 행복과 삶의 질 측정

행복과 삶의 질 측정 지표는 크게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에서 한국은 2006년 177개국 중 26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주관적 측정으로 이루어진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한국은 2001년 78개국 중 49위를 하였으며, 1위는 나이지리아로 나타났다(표 5-1 참고).

<표 5-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삶의 질과 행복의 측정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각각의 지표마다 측정되는 항목에 있어서 유사하기도 하지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객관적 측정은 외부에서 명시된 기준에 기초하여 주관적 인식과는 독립적으로 측정되는 것을 말하며, 주관적 측정은 암시적인 기준에 의해서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Veenhoven, 2002). 보통 객관적 지표 사용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좋은 삶(good life)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보편적이고 사회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초적인 접근방식에서 나온 정보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관적 지표의 사용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한 개인적인 삶의 질 개념을 기초로 한다. 삶에

대한 사람들의 다차원적인 평가는 기분이나 감정의 주관적인 평가뿐 아니라 삶의 만족에 대한 인식적인 판단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인들 스스로의 평가로 구성된다(Royo & Velazco, 2005).

〈표 5-1〉 삶의 질 조사 결과

지표명	담당기관	결과			
		연도	대상국	1위	한국
인간개발지수 (HDI: Human Development Index)	UNDP	2006년	177개국	노르웨이 (0.965)	26위 (0.912)
행복한 지구 지수 (HPI: The Happy Planet Index)	NEF: New Economics Foundation	2006년	178개국	바누아투 (68.2점)	102위 (41.1점)
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 Survey)	미국 미시간 대학교	1999~2001년	78개국	나이지리아	49위
삶의 질 지수 (Quality-of-life Index)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년	111개국	아일랜드 (8.333점)	30위 (6.877점)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기존의 행복 또는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 국내연구와 국제비교 연구, 국가별 연구, 개별 연구로 구분하여 각 지표의 구성방식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가. 국내연구

1) 한국인의 삶의 질(이현승, 1997)

이 연구는 삶의 질의 객관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사회지표들의 영역구분을 고려하여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6개 영역을 대표하는 통계지표들은 OECD 국가들의 통계자료로 구성되었으며, 1969~92년의 5년 단위 통계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 통계자료 중 소득부분을 제외한 5개 영역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아이겐값(eigen value)이 1이 넘거나 이에 근

접하는 요인으로 통계지표를 구성하였다. 6개 영역과 각 영역의 지표들은 <표 5-2>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다양한 차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 안에서 지표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표구성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참여나 환경과 관련된 영역은 제외되어 있다.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이라든지, TV보급률, 전화보급률, 도서발행률과 같은 지표들은 현재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에는 변별력이 없는 지표로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없다. 또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요소들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5-2> 한국인의 삶의 질 구성

영역	변수명
소득	1인당 GNP
보건	남성의 기대수명, 여성의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5세 미만 유아사망률, 65세 이상 인구비율, 의사 1인당 인구비율, 식수보급률
교육	남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고등학교 수료 이상 인구비율, 초등학교사 1인당 학생수
노동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산재사고사망률, 제조업 주당근로시간
문화/정보	TV보급률, 도서발행률, 전화보급률, 신문구독률, 과학자, 전문기술인 비율
형평	상위 20%대 하위 20%의 소득비율, 하위 40%의 소득점유율, 취학률의 남녀비율, 경제활동참가율 남녀비율, 복지부문 정부지출비율, 교육보건부문 정부지출비율

2) 행복지수 척도 및 공식 개발

(김명소 외, 2003; 김명소·한영석, 2006)

김명소 외(2003)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성인남녀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와, 이 척도를 중

심으로 행복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수 공식을 개발하였다(김명소·한영석, 2006). 행복지수의 개발과정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1차에서는 성인남녀 61명을 대상으로 FGI를 통해 행복한 삶에 관련된 내용 138개를 추출하였다. 2차에서는 1차에서 추출한 138개 문항과 기존 문헌에서 추출한 종교와 사회/정치/문화/환경 요인 10개에 대하여 행복한 삶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평가(6점척도)하도록 하였다. 3차에서는 2차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의 척도 총 97문항이 자신의 삶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정도를 평가(6점척도)하여 최종 행복지수를 개발하였다.

전체적인 행복지수는 16개 요인과 9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16개 요인을 생존/관계/성장 욕구위계이론에 근거하여 재구성하였다(표 5-3 참고). 가중치를 부여한 행복지수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행복지수 산출 공식} = 2.5 \times \text{생존} + 2.5 \times \text{관계} + 5 \times \text{성장}$$

이 행복지수의 경우는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차원에서의 평가를 통해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척도를 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항수가 너무 많아 단일 연구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비교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국가간 비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러한 활용도가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척도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보편성이나 일반성 측면이 부족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이나 사회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서울시민 행복지수 측정 지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수를 개발하였다. 행복지수 개발과정은 기존 문헌검토를 통해서 지표의 공통부분을 추출하였고, 구축된 지표를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설문문항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개발된 5개 영역(경제, 문화, 복지, 환경, 시민)의 37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최종 8개 분야의 21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각 영역별 설문문항과 함께 주관적인 건강평가, 서울시에 대한 자부심,

주관적 행복감 문항을 포함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척도로 동의여부 정도를 묻고 있다¹⁾(표 5-4 참고).

〈표 5-3〉 한국인의 행복요소

육구	한국인의 행복요소	정의
생존	경제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금전적 여유와 경제적 능력의 정도
	사회/정치/문화/환경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현 사회의 제반 환경적 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외모	현재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건강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없고 건강에 자신있어 하는 정도
관계	자녀의 바른 성장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녀간에 화목한 정도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과 친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정도
	배우자와의 사랑 및 신뢰	배우자와의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배우자로부터 배려,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위에 친밀감을 느끼는 타인이 있는 정도
	사회적 지위 및 인정	타인으로부터 현재 자신의 사회적 지위, 학력 등에 대해 인정받고 있는 정도
성장	자기 수용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성취감, 수용감 정도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와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도
	자립성	자신과 관련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정도
	여가	일상을 벗어난 문화생활 및 레저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하는 정도
	긍정적 인생관	삶을 살아가는 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사회봉사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종교	현재 만족스러운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정도

1) 프리테스트의 표본은 400명이고, 본 설문에 있어 표본은 1,000명이다.

<표 5-4> 서울시민 행복도 지표 조사항목

영역	설문문항
경제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다
	서울의 물가는 비싸다
문화/교육	주변에 다양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환경에 만족한다
복지	장래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가족 외에 편안하게 도움을 받을 제도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 및 보호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
	서울시의 보건/복지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사회안전	밤에 거리를 다니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교통사고, 재해/재난 등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생태환경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
	서울의 공기오염은 심각하다
생활환경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웃 및 주변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지낼 공간이 충분하다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시민시정	서울시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이용해 얻는데 불편함이 없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민원을 잘 수행한다
	서울시의 행정은 투명하다
공동체적 삶	이웃과 주변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지낼 기회가 많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마련되어 있다

- 당신은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서울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행복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세계 도시와의 비교를 위해서 이 문항으로 세계 10대 도시²⁾와 서울의 행복지수를 비교하였다. 주관적인 행복감에 대한 국제 도시별 평가를 보면, 스톡홀름이 80.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론토(79.97), 뉴욕(78.30) 등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는 63.6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베이징(67.76), 도쿄(69.01), 밀라노(69.52) 등도 낮게 나타났다(서울복지재단, 2006).

이 행복지수는 서울시와 국제도시의 비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로 도시비교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측정은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주관적 측정문항만으로 행복을 측정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은 조사결과가 조사의 시기와 조사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의 만족도로 물질적 환경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정책결정의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객관적인 지표만큼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4)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김신영 외, 2006)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삶의 영역구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개발된 “Child Well-Being Index”의 구분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였으나, 지수산출에 있어 객관적 지표의 한계로 인해 지수산출은 주관적 지표로만 이루어졌다. 지표는 모두 6개 영역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5-5 참고).

이 연구의 경우 대상이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어서 개별지표에 있어서의 참고자료로는 부족한 점이 있으나, 지표구성 과정이나 지수산출 방안은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따로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객관적 지표의 지수 산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표구축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국제비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뉴욕시, 토론토시, 런던광역시, 파리광역시, 베를린시, 밀라노시, 도쿄도, 베이징직할시, 스톡홀름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2006년 11월 25일~12월 14일 동안) 전화조사를 하였다.

〈표 5-5〉 청소년 행복지수 지표 구성

영역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경제적 안녕	가구빈곤율, 부모 고용률, 월평균 가구소득	계층귀속감,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2문항)
자신에 대한 만족	의료보험혜택 청소년의 비율, 사망률, 매우 건강한 청소년 비율, 활동제한 청소년의 비율, 과체중 청소년 비율, 흡연율, 음주율, 불법약물 복용률	주관적 건강상태, 여가생활 만족도, 외모에 대한 만족도, 성격에 대한 만족도
안전	폭력피해율, 청소년 출산율	학교에서의 안전감(5문항), 거주지역의 안전감(5문항)
학업성취	읽기시험 점수, 수학시험 점수, 진학률, youth inactivity,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	학업성취 정도의 만족감
사회적 관계	이혼율	가정에서의 관계(5문항), 학교에서의 관계(3문항), 친구관계(5문항)
정서적/정신적 안녕	자살률	긍정적 정서 측정(5문항), 부정적 정서 측정(5문항)

5) 국내연구 정리

국내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체 한국사회의 행복을 측정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이 개별연구들로 일회성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민 행복지수와 청소년 행복지수는 개별연구가 아닌, 꾸준히 구축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이지만, 그 대상이 서울시민과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어 지표구성이 그 범위에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김명소 외(2003)도 지표개발 과정에서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범위가 한정된 측면이 있다.

지표의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이현송(1997)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연구들의 경우에도 측정내용이 각자 다르게 나타났다. 각 연구의 대상이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질문항목의 구성 자체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질문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즉, 보편적으로 포함되는 몇 개 항목

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준으로 지표가 구성되고 있다. 서울시민 행복지수의 경우는 사회제도나 환경적 측면의 만족도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평가로 지표가 구성되는 반면, 김명소 등의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측면보다 개인의 삶이나 생활에 있어서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이현송(1997)은 객관적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표구성 과정에 있어서 국제비교를 위해서 구축 가능한 지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정된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즉, 국내연구에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개발된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SBS에서 주관한 「제4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행복지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SBS, 2006).

나. 국제비교 연구

1)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UNDP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인간개발지수에서는 수명,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각각의 차원은 평균수명, 교육정도, 교육기회, 1인당 GDP 등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된다. 인간개발지수의 구성은 세 가지 차원의 산술평균으로 세 가지 지수를 더한 뒤, 3으로 나누어 산출된다³⁾.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177개국 중 1위는 노르웨이(0.965)가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26위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캐나다 등의 나라들이 높게 나타났다.

인간개발지수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측정하고 있어, 서로 다른 문화간에 비교가 용이하다. 그러나 지표수가 적고 단순하여, 행복이나 삶의 질 척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3) $HDI = 1/3(\text{life expectancy index}) + 1/3(\text{educational index}) + 1/3(\text{GDP index})$.

〈표 5-6〉 인간개발지수의 구성지표

차원	지표	차원지수
A long and healthy life	Life expectancy at birth	평균수명 지수
Knowledge	Adult literacy rate Combined Gross enrolment ratio - 교육기회	교육지수 = 2/3(Adult literacy index) +1/3(Combined Gross enrolment ratio)
A decent standard of living	GDP per capita	GDP 지수

2) EIU의 삶의 질 지수(EIU's Quality-of-life Index)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서베이 결과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하였다. 2005년에는 111개 나라에 대해서 지수를 계산한 결과, 아일랜드가 1위를 했으며,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이 뒤를 잇고 있어 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 지수에서 30위를 차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표의 구성을 위해, 74개 국가의 삶의 만족도 서베이 평균점수(1999년 또는 200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점수의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9개 요인을 추출하였다(표 5-7 참고). 사용된 데이터들은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국가간 비교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지수는 9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차원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각 영역별로 한 개씩이어서 각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로 너무 단순화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강의 경우 기대수명만으로 건강 여부 판단이 어렵고, 가족생활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이혼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5-7〉 EIU의 삶의 질 지수 구성

영역	지표
물질적 안녕(Material wellbeing)	1인당 GDP
건강(Health)	기대수명
정치적 안정성 (Political stability and security)	정치적 안정성과 안전 비율
가족생활(Family life)	이혼율(인구 천명당),
공동체생활(Community life)	교회참석이나 노동조합 조합회원의 비율이 높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더미변수 사용
기온, 기후 (Climate and Geography)	따뜻하고 차가운 온도가 변화하는 범위 (Latitude, to distinguish between warmer and colder climates.)
직업 안정성(Job security)	실업률
정치적 자유(Political freedom)	정치와 시민자유 의 평균지수(7점척도)
성 평등성(Gender equality)	남성과 여성의 평균임금 차이

3) NEF의 행복한 지구 지수(The Happy Planet Index: HPI)

행복한 지구 지수는 신경제학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 NEF)에서 지표개발을 한 행복지수이다. 행복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인간의 행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생태학적 능률을 보여주는 새로운 측정방법이다. 이 지수는 0에서 100점의 점수로 나타나며, 평균수명과 스스로 평가한 삶의 만족도,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생태학적 발자취(ecological footprint)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2006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178개 국가 중 바누아투가 68.2점으로 1위를 했다. 그 외에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크 등의 나라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한국은 41.1점으로 102위를 하였다. 지수의 계산방식은 다음의 식과 같다.

$$\text{행복한 지구 지수(HPI)} = (\text{삶의 만족도} \times \text{기대수명}^4) / \text{생태학적 발자취}$$

4) 기대수명은 25세~85세 사이의 값을 0-1의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HPI는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지만, HDI와 마찬가지로 너무 단순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표구성에 있어서 자연환경적 측면을 중요시해서 측정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지표들과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8〉 행복한 지구 지수의 구성

영역	지표
평균수명 (Life expectancy)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생태학적 발자취 (Ecological footprint)	인구를 유지하고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토지면적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subjective life satisfaction) 10점척도 - 질문문항: 당신의 전체 삶을 고려할 때 당신은 현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국제비교 연구 정리

국제비교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많은 국가간의 비교이다. 따라서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표가 매우 단순화되어 있으며, 보편적인 통계자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표 구성에 있어서는 조사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순위 또한 어떠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조사에 대해서 전체 순위로 국가간 비교를 하기보다는 구성되는 지표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비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비교 연구는 서로 다른 국가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들은 이의 측정이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제비교의 보편적인 기준 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비교에서 주관적 측정을 위해서는 언어 해석과정에서의 문화간 차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비교 지표들은 문화간 차이를 비교한다는 측면에

서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파악하기 위해서나,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대표되는 지표보다는 우리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세부지표가 필요하다.

다. 국가별 연구

1) 부탄의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부탄에서는 GDP보다 GNH를 좋은 정부의 표준으로 삼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GNH는 9개의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는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가 혼합되어 있다. 9개 분야는 생활수준, 건강, 교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회복력,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력, 시간 사용과 균형, 거버넌스,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심리적 행복으로 구성된다.

2) 캐나다의 웰빙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캐나다의 CIW팀은 현재 캐나다의 웰빙(wellbeing)정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는 전체 7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은 캐나다인과 국제적 팀, 자문위원회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캐나다의 웰빙지수는 공동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건강영역에 있어서 다른 지표들보다 세부적인 지표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3)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PLI)

신국민생활지표(People's Life Indicators: PLI)는 일본 국민생활을 둘러싸는 환경변화, 국민의 의식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에서 1992년부터 제안하여 작성한 지표이다.

PLI는 개인 생활의 풍부함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주의 기본분야에 더하여 개인의 여가와 자유시간 활용 측면을 파악하여 주거, 소비, 근로, 양육, 보건, 여가, 교육, 교제/관계의 8개 활동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영역에 대해서 안전, 공정, 자유, 쾌적 등 4

개의 평가축을 설정해 각 활동영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영역별 중요도에 따라서 지표구성을 하였다.

〈표 5-9〉 캐나다 웰빙지수의 구성

영역	지표
생활수준 (Living Standard)	안정적 고용, 적정소득, 저임금비율, 빈부격차, 식품안정성, 충분한 주택공급
시간사용 (Time Allocation)	유급노동, 무급노동과 여가시간 사이의 균형, 시간사용에 대한 결정권, 시간부족에 대한 스트레스
건강 (Healthy Populations)	자가진단 건강상태, 건강수명, 저체중출생/천식/비만/당뇨병과 같은 신체 건강 상태, 우울증 비율, 기능적 건강(상해), 흡연, 신체적 활동, 건강서비스에 대한 전체 만족도
생태계 (Ecosystem Health)	깨끗한 공기와 물, 건강한 숲, 토양, 해양환경, 이산화탄소 배출량, 쓰레기재활용, 환경지속가능성
교육 (Educated Populace)	기초언어능력, 기초수리계산력, 교육적 성취 지표, 공식/비공식 교육의 질
공동체 지속 (Community Vitality)	안전성, 결속력, 사람들 사이 신뢰, 소속감과 일치감, 사회네트워크와 사회참여, 다양성과 포괄성, 공동체 안정성, 자원과 서비스의 접근성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공공의 관심과 이슈에 대한 개인과 집단행동,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추가적인 가족활동

〈표 5-10〉 신국민생활지표 영역별 지표구성

영역	지표구성 내용
주거	주거, 주거환경, 근린 사회의 치안 등의 상황
소비지출	수입, 지출, 자산, 소비생활 등의 상황
근로	임금, 노동시간, 취업기회, 노동환경 등의 상황
양육	(자신의 자녀를 위한) 육아/교육 지출, 교육시설, 진학률 등의 상황
보건의료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 등의 상황
여가	휴가, 여가시설, 여가 지출 등의 상황
교육	(성인을 위한) 대학, 생애학습 시설, 문화적 시설, 학습시간 등의 상황
교제/관계	혼인, 지역교류, 사회적 활동 등의 상황

PLI는 변화율 표준화 지수를 이용하여 10년간 매년 변화율의 절대치 평균이 1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한 후 기준연도를 100으로 설정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로 가중치는 국민생활선호도 조사를 중심으로 계산되었다.

이 지표는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라기보다는 사회전반에 대한 지표로, 한국의 사회지표와 오히려 가깝다고 볼 수 있다.

4) 홍콩의 삶의 질 지수(CUHK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홍콩의 삶의 질 지수는 홍콩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홍콩 Chinese University의 사회과학 교수진들에 의해서 개발된 삶의 질 지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문화, 경제, 환경 영역의 21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지표들은 공식통계와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지수계산은 2002년을 기준으로 전체 합계값을 100으로 놓고 계산하여 연도별 변화율을 파악한다. 따라서 2002년의 각 개별 지표들은 가중치 없이 모두 같은 4.76의 값을 가진다.

21개 지표 중 6개 지표(스트레스 지수, 삶의 만족도 지수, 언론비판 지수, 언론자유도 지수, 정부수행 지수, 현재 경제상황 지수)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측정되어 산출된 지표이다.

〈표 5-11〉 홍콩의 삶의 질 지수 영역구성

영역	지표
사회문화	출산율, 기대수명, 건강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 신고 가능한 전염병 신고율, 스트레스 지수,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지수, 언론자유도 지수, 언론비판 지수, 정부수행지수, 전체 범죄율
경제	주택구매비율, 전세지수, 실업률, 현재 경제상황지수, 실질임금 지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 지역대학에서 프로그램의 연령별 참여 비율
환경	대기지수, 수질지수, 소음지수, 재활용률

5) 국가별 연구 내용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연구들의 공통점은 보통 행복지수로 개발되기 보다는 삶의 질 또는 웰빙 지수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국가간의 비교보다는 그 사회의 시계열적인 비교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간 비교가능성이 높은 지표보다 그 사회의 특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반영하는 지표 위주로 구성된다.

지표의 구성방식은 주로 객관적 지표가 중심이 되고,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적 지표를 추가로 구성하고 있다. 영역의 구분에 있어서도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 사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부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연구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유사한 연구들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가적으로 행복을 측정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OECD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행복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OECD 통계국장인 엔리코 지오반니니는 「제4차 미래한국리포트」의 기조연설에서 경제 위주 지표인 GDP보다 GNH(Gross National Happiness), 즉 국가행복지수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SBS, 2006). 최근 2007년 4월에는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s mean for policy?” 라는 주제로 행복의 결정요인, 행복측정과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에는 “Measuring and Foste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라는 주제로 사회발전을 부양하는 사회측정에 대한 세계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세부 주제 중 하나로 ‘행복측정과 정책결정’에 대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회의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행복의 측정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행복의 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 그 외 개별 연구

1) Happiness Report(Rothwell & Cohen, 2003)

Rothwell & Cohen은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80가지 문항을 제시하여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을 설문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요소와 다음의 행복공식을 창안하였다.

$$\text{Happiness} = P + 5 * E + 3 * H$$

행복공식에서 P(Personal Characteristics)는 개인의 성격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도전능력, 긍정적 사고, 유연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전체 행복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E(Existence Needs)는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뜻하는 것으로 건강, 재정, 안전 등을 의미한다. H(Higher Order Needs)는 삶과 개인의 관계에 깊게 관련된 고차원적인 행복요소로 자존심, 도전, 자아실현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 개의 구성요소로 개인의 전체 행복을 측정한다. 각 요소는 전체 4개의 문항으로 질문되고,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서 11점척도로 응답하게 된다(표 5-12 참고).

〈표 5-12〉 행복공식 측정 문항

영역	측정 문항
Personal Characteri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은 사교적이고 원기왕성하며 변화를 잘 받아들입니까? - 당신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패해도 빨리 일어섭니까, 또 삶을 스스로 잘 통제하고 있습니까?
Existence N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 돈, 안전, 선택의 자유, 공동체의식 등 삶의 기본적 욕구가 잘 충족되고 있습니까?
Higher Order N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주위에 많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행복공식 측정 문항은 너무 주관적으로 행복을 측정하고 있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응답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개의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4개 문항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문항이 너무 단일화되어 있다. 또한 많은 의미의 내용을 하나의 문항으로 묻고 있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우며, 문항의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Diener et al., 1985)

Diener 등의 연구자들은 주관적인 안녕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삶의 만족도 등 세 개의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 점수를 측정하고자 최초 48개 항목의 요인분석을 통해서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이 .60보다 작은 것을 제외하여 10개의 항목이 남게 되었으며, 이 중에서 감정적으로 유사한 5개 항목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하여 결정된 최종 5개 문항에 대하여 7점 척도로 동의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5-13 참고).

이 척도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이나 경제적 고려보다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만족도만을 측정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포괄적으로 질문되고 있다.

<표 5-13> SWLS의 문항구성

1. 대체로 나의 생활은 나의 이상과 가깝다
2. 내 생활의 조건들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다
3.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소유해 왔다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3) 행복과 관련된 개별 연구들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Hoorn(2007)에서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개인적 요인, 배경적이고 상황적인 요인, 인구학적인 요인, 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 6개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특성이나 감정이 주관적 웰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적·상황적 요인은 개인의 배경이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건강이 좋은 사람이 주관적 웰빙이 높게 나타나거나,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관적 웰빙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인구학적인 요인으로는 성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연령에서는 U자 곡선의 형태를 보여 나이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게 나타난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는 직접민주주의에서, 정치적·개인적 자유가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주관적 웰빙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Helliwell의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8개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Helliwell, 2006). 8개 요소는 건강과 교육, 소득과 실업, 종교, 사회자본, 신뢰, 민족, 이주자와 차별, 직업의 사회자본이다. 이 연구에서 소득은 행복에 매우 작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자본이 행복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의 만족도도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실업상태보다 여러 가지 요인에서 불만족이 높은 직업이 행복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Helliwell, 2006; Lambert, 2005).

이 외에도 Shackman 등의 삶의 질 측정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포함되는 공통적인 영역은 경제, 건강, 교육, 환경의 질, 자유, 사회참여, 자아만족 등의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hackman et al., 2005). Choe(2007)에서는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러 문화나 국가에서 본질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다섯 가지 요인을 물질적 자원 또는 생활수준, 사회적 관계, 건강, 좋은 직업, 사회 환경 등으로 보았다. Cooke의 공동체 웰빙지수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웰빙의 측정을 위해 교육, 노동시장 참여와 실업, 소득, 주거의 차원으로 측정하였다(Cooke, 2005).

4) 개별 연구들의 내용

행복과 관련된 개별 연구들의 내용은 주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방식에 있어서도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내용 또한 주로 개개인의 삶의 전반에 걸친 만족도나 자아성취감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적인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개인들의 만족도와 자아성취감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행복의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분석결과를 통해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표개발과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3. 선행연구들의 지표구성 비교

선행연구들에서 행복과 삶의 질 측정의 영역 구분 방식을 보면 단일한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경우와 다양한 차원으로 측정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표 5-14 참고).

HDI, HPI, 행복공식(Rothwell & Cohen, 2003)의 연구에서는 모두 세 개의 단일한 차원으로 구분하여 행복 또는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각 차원을 설명하는 지표도 한 개 또는 두 개의 지표만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그 외의 연구에서는 보통 6개 이상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들로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의 영역 구분 방식은 대부분 기존 연구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김신영 외, 2006; 이현송, 1997).

앞에서 검토했던 기존 연구들의 영역 구분을 보면 주로 생활수준이나 경제 영역, 신체적·정신적 건강 영역, 가족 또는 공동체 생활 등의 사회적 관계, 문화, 환경, 자신에 대한 만족도 및 자아 성취(직업)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즉, 행복과 삶의 질의 결정요소는 크게 경제적 측면, 신체적·정신적 건강, 가족·사회관계(사회자본), 생활환경여건, 자아성취와 만족감, 교육·직업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표 5-14〉 삶의 질 및 행복지수 측정 비교

지표명	측정구분	지표구성		영역내용
		영역	지표	
UNDP의 HDI	객관적 지표	3	4	평균수명/교육수준/생활수준
EIU의 삶의 질 지수	객관적/주관적	9	9	물질적 안녕/건강/정치적 안정성/가족생활/공동체생활/기온, 기후/직업 안정성/정치적 자유/성평등성
NEF의 HPI	객관적/주관적	3	3	평균수명/생태학적발자취/삶의만족도
WHO QOL	주관적	6	100	신체적 건강/심리적 측면/자립성/사회관계/환경/종교 및 개인적 신념
캐나다의 CIW	객관적/주관적	7	37	생활수준/시간사용/건강/생태계/교육/공동체/시민참여
부탄의 GNH	객관적/주관적	9		생활수준/건강/교육/생태계의 다양성과 회복력/문화적 다양성과 지속력/시간사용과 균형/거버넌스/활력 있는 지역사회/심리적 행복
호주의 웰빙지수	주관적/객관적	9		인구/가족과 공동체/건강/교육/직업/경제자원/주택/범죄/문화와 레저
행복공식 (Rothwell & Cohen)	주관적	3	4	개인적 특징/생존욕구/고차원 욕구
SWLS (Diener et al.)	주관적	-	5	
한국인의 삶의 질 (이현송)	객관적	6	30	소득/보건/교육/노동/문화정보/형평
행복지수 공식개발 (김명소 외)	주관적	16	97	경제력/사회정치문화환경/외모/건강/자녀의 바른 성장/부모 및 친지 간의 원만한 관계/배우자와의 사랑 및 신뢰/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사회적 지위 및 인정/자기수용감/자기개발 및 목표추구/자립성/여가/긍정적 인생관/사회봉사/종교
서울시민 행복지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관적	8	29	경제/문화교육/복지/사회안전/생태환경/생활환경/시민시정/공동체적 삶
청소년 행복지수 (청소년개발원)	객관적/주관적	6	32	경제적 안녕/자신에 대한 만족/안전/학업성취/사회적 관계/정서적, 정신적 안녕
신국민생활지표: PLI (일본 경제기획청)	객관적	8	204	주거/소비지출/근로/양육/보건의료/여가/교육/교제, 관계
홍콩의 삶의 질 지수	객관적/주관적	3	21	사회와 문화/경제/환경

이러한 영역을 대표하여 측정하는 지표를 구성하기 전에 객관적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 주관적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 연구들의 측정지표는 주로 주관적인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존 연구들의 행복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측정지표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Veenhoven, 2002; 이현송, 1997). 주관적 측정방식의 단점은 첫째,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에 있다. 이는 보편적인 척도구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사회와 비교시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주관적인 평가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결정될 수 있다. 즉, 자신의 현재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또는 기대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소득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서은국, 2007; Royo & Velazco, 2005; Hagerty & Veenhoven, 2003; 조궁호, 2003). 셋째, 여러 사회와의 비교시 문화의 차이에 의해 표현방식, 만족의 인지정도가 다를 수 있고, 언어적 차이로 인해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객관적 측정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행복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정도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게 될 경우 그 지표가 얼마나 타당한지의 문제이다. 소득이나 주변환경, 즉 사회경제적 환경 등이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없으며, 주관적인 만족도나 개인의 감정은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직업의 유무와 종류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은 개인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들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Ryff & Keyes(1995)의 주장에서와 같이, 개인이 과연 어떤 하위요인에 의해 혹은 어떤 하위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가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인구통계학적 집단간 차이가 여전히 중요한 연구의 틀이 될 수 있다. Veenhoven(2005)의 연구에서도 삶의 질을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HLY: Happy-Life-Year)으로 가정하였지만, HLY 또한 국가의 경제적 환경, 자유, 정의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본다⁵⁾. 그리고 객관적

지표의 경우 주관적 지표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주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편이고, 비교 가능성이나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 두 방법의 지표 모두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Veenhoven, 2002).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단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객관적 지표의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주관적 지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표구성을 하고자 한다.

제3절 행복지수의 지표개발 과정

1. 한국의 사회지표 적용 가능성

가. 지표개발의 기준점

성공적인 지표개발 과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점에 대해서 호주 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Trewin, 2001).

첫째,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영으로, 사회지표는 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이나 이슈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실업은 일자리의 부족을 반영하는 지표이고, 사고와 자살률은 사회에서 비일상적인 죽음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시계열 이용가능성으로, 사회지표의 구축에 있어서 연도별로 구축이 가능한 지표여야 한다. 단일시점의 지표는 인구나 지역적인 비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구축 가능한 지표여야 한다. 셋째, 변화에 민감하고 그러한 변화가 의미 있는 지표여야 한다. 넷째, 지표의 본질을 잘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된 지표의 경우 그 값이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전체 호주 인구의 낮은 출산시 사망률은 호주 원주민의

5) Veenhoven(2005)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풍요, 자유, 정의가 HLY의 국가간 변량의 66%라고 설명하고 있다.

높은 출산시 사망률을 감출 수 있다. 다섯째, 지표는 여러 성분으로 분해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지표는 각 나라별 특성뿐 아니라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표는 가족의 유형, 실업 계층, 직업, 민족, 지역, 교육수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지표는 이해하고 해석하기 쉬워야 한다. 지표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너무 복잡하지 않으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다른 지표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지표들은 상호 의존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전체적인 현상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지표개발에 있어서의 기준점은 지표의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을 설명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한국의 사회지표 내용

‘한국의 사회지표’는 1979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어 1987년, 1995년, 2004년 세 차례의 개편과정을 거쳐, 2006년 13개 영역의 489개 지표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주요 국면에 관하여 종합적이며 균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 지향적 관심의 성격을 가진 통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정도 등을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사회상태를 종합적·체계적·균형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역할을 하며,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각종 사회개발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 및 효과 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통계청, 2006).

‘한국의 사회지표’의 구성에 있어서 기준은 ①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야 하고, ② 사회의 변동, 안녕의 변동을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하고, ③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하고, ④ 사회적 관심을 표현하여야 하며, 정책과 관련성을 가지고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하고, ⑤ 특정인구집단의 안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분해 가능하여야 하며, ⑥ 시계열적 통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러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사회지표의 13개 영역은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이다. 영역구성을 보면 모든 사회의 영역을 거의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역의 구성에 있어서 ‘한국의 사회지표’의 13개 영역을 기초로 하여 행복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영역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물론 ‘한국의 사회지표’가 행복지수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을 포함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기존에 구축된 자료들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표를 기본 자료로 이용할 경우 기존의 자료 안에서만 내용이 한정되는 단점이 있지만, 자료구축과 검증에 관련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표의 개발과정과 개편과정을 거쳐서 검증된 지표체계로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 항에서는 사회지표의 영역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행복지수의 영역을 구성할 것이다.

2. 행복지수의 영역 및 지표 구성

가. 영역의 구성

‘한국의 사회지표’의 각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구 영역은 인구의 구성, 분포, 출생과 사망, 인구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 통계국의 연구에서는 인구의 구성, 크기, 분포는 사회·경제적 욕구의 충족과 관련되어 웰빙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Trewin, 2001). 인구밀도나 인구분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나, 인구밀도의 경우 많고 적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인구와 관련된 영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가족 영역은 가족의 구성과 형성, 노인생활, 가족 규범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은 개인의 정서적, 물질적, 재정적 보호와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Trewin, 2001). 또한 가족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가족간의 관계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보여주고 있으며(Lambert, 2005), 기존의 선행연구(EIU, 2005; 김명소 외, 2004)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다.

소득과 소비 영역은 소득 및 소비 수준, 저축 및 투자, 소득분배, 경제생활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수준은 경제적 자원에 의해서 결정되고, 높은 소득과 부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다(Trewin, 2001). 이 영역은 경제자원과 관련된 영역으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 물질적 안녕이나 생활수준의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UNDP,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김신영 외, 2006; EIU, 2005; Chan et al., 2005; 김명소 외, 2004; 이현송, 1997).

노동 영역은 고용, 근로조건, 노사관계, 취업 등 직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직업은 경제적 자원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으며, 임금, 근무환경, 근무기간, 업무의 만족도 등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Trewin, 2001). Helliwell(2006)에서는 직업 환경과 직업만족도를 행복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기존 연구들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근로시간, 직업 만족도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직업과 관련된 영역으로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EIU, 2005; 이현송, 1997). 직업과 관련된 영역의 경우 사회관계의 측면과 개인의 자아성취감을 측정하는 지표와도 연관되어 있어 행복 측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교육 영역은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개인에게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문제의 감소와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Trewin, 2001). 기존 연구에서는 행복 측정의 한 부분으로 교육의 질, 지식수준, 교육기회, 만족도 등의 지표로 교육 영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UNDP,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김신영 외, 2006; EIU, 2005; 이현송, 1997).

보건 영역은 건강상태, 보건의료 이용, 의료자원, 의료비용, 의료기술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되는 것으로, 장애나 병은 사람들의 자유와 생활방식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Trewin, 2001). 보건 영역은 기존의 거의 모든 연구에서 건강,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영역으로 포함되어 행복을 측정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Marks et al., 2006; UNDP, 2006; EIU, 2005; 김명소 외, 2004; 이현송, 1997).

주거와 교통 영역은 주택, 주거, 교통시설 및 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는 숙소, 안전,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요소이며, 사회적으로는 사회환경의 질에 기여하는 요소가 된다(Trewin, 2001). 기존 연구에서 주거 또는 교통과 관련된 지표는 생활환경 영역에 포함되어 주변생활과 교통에 대한 만족도, 주택구매와 관련된 지표를 행복 또는 삶의 질 측정의 구성요소로 사용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Chan et al., 2005).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에 대한 영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정보와 통신 영역은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화 기반,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은 최근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지표로서 정보화수준이나 환경은 삶의 질이나 사회지표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영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전체 사회에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연령별로 행복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다. 그리고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 중 정보화 기반과 관련된 지표들은 이미 일정수준을 넘어선 지표들이 많아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환경 영역은 환경상태, 환경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 또한 정보영역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삶의 질이나 생활환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많은 연구에서 생태계나 환경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HPI는 생태학적 발자취(ecological footprint)를 행복 측정의 중요한 지표로 포함시키고 있다(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Marks et al.,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EIU, 2005; Chan et al., 2005).

복지 영역은 복지증진, 사회보험, 공공부조, 복지서비스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 영역은 전반적인 사회의 복지제도나 서비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기존 연구 중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6)에서 복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양육·보호 시설에 대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이 있지만,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전체의 삶의 질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는 영역이며, 다른 영역들과 겹쳐 있는 부분이 많다(예를 들면, 가족 영역이나 직업 영역과 겹칠 수 있음).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개별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문화와 여가 영역은 문화유산, 예술, 문화산업, 문화 활동, 문화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와 여가시간의 활용은 개인에게는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결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Trewin, 2001). 기존 연구에서 문화는 주로 문화시설, 여가 활용, 시간사용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고 있다(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이현송, 1997). 문화생활과 여가는 개인에게 있어서 직업과는 다른 자기개발이나 휴식과 연관된 개념으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안전 영역은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 범죄, 사고, 법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높은 범죄율은 개인에게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인의 생활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신뢰나 자유와 같은 사회적 자원의 감소를 가져오게 한다(Trewin, 2001). 기존 연구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6)에서 사고의 위험성, 범죄의 위험성을 통해서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으로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은 정치적 참여와 사회참여, 시민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와 참여, 사회참여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시민참여의 영역이나 시민자치활동, 행정, 정치적 안정성 등이 행복 또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한 부분이 되고 있다(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EIU, 2005). 영국 캠브리지대 유럽사회조사팀이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행복은 정부와 사회체제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결정되며, 행복한 사람들은 친구가 많거나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주도한 코라도 박사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람간의 사회적 관계라고 보았다⁶⁾.

한국의 사회지표는 지표로서의 기준에 맞게 개발되고 개선된 지표체계로 지표로서 적당하다고 가정하고,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다(표 5-15 참고).

〈표 5-15〉 한국의 사회지표 영역과 선행연구들의 영역의 비교

	UNDP HDI	EIU 삶의질 지수	NEF HPI	WHO QOL	캐나다 CIW	부탄 GNH	호주 웰빙 지수	한국인 삶의 질	서울시 행복 지수	일본 PLI	홍콩 삶의질 지수	OECD 사회 지표
인구												
가구와 가족		0					0					
소득과 소비	0	0			0	0	0	0	0	0	0	0
노동		0					0	0		0		
교육	0				0	0	0	0	0	0		0
보건	0	0	0	0	0	0	0	0		0		0
주거/교통							0		0	0		0
정보/통신												
환경		0	0	0	0	0			0		0	0
복지									0			
문화와 여가					0	0	0	0	0		0	0
안전							0		0			0
정부/사회참여		0		0	0	0			0	0		

6) 이 연구는 유럽연합 15개국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덴마크 국민이 8.3점으로 가장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07.4.18; <http://www.admin.cam.ac.uk/news/dp/2007041701>).

그 결과 행복 또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선행연구들이 측정하는 대부분의 영역을 사회지표에서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체계보다 더 세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영역은 소득과 소비, 교육, 보건, 환경, 문화와 여가,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이다. 기존의 13개 영역 모두 삶의 질과 관련이 되는 지표이겠지만,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영역이 너무 많고 광범위하여 기존 연구를 토대로 몇 개의 영역을 통합하여 재구성하였다.

통합된 영역은 가족, 경제, 직업, 교육, 건강, 주거, 환경,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사회신투)로 모두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인구 영역의 경우 인구의 밀도나 분포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선행연구들을 볼 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제외하였다. 인구밀도의 경우는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인구밀도의 적정수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 제시가 어려운 지표이며, 주로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인구의 분포를 보여주는 노령화 지수 등은 필요하다면 가족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와 교통, 복지 영역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역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주거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여 필요시에는 지표의 구성에는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와 통신 영역은 전체 사회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영역보다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영역 구분에서는 제외하였다.

나. 영역별 지표구성

영역별로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행복이나 삶의 질과 관련이 높은 지표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들의 지표구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참고로 1차 지표구성을 하고자 한다. 물론 선행연구들이 모두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완벽하고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

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복과 관련된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지표를 구성하는 것도 의미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지표구성을 보면, 주로 출산율, 이혼율, 가족관계 등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EIU, 2005; Chan et al., 2005; 김명소 외, 2004).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가구와 가족 부문이 모두 3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가구구성과 형태, 태도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영역에서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가족간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출산율과 조이혼율은 선행연구에서도 주로 포함되었던 지표들이고, 1인가구 비율, 소년소녀가장 가구수, 가족관계 만족도는 모두 가족관계의 정도를 보기 위한 지표들이다. 1인가구나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와 동일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족관계 만족도 지표의 경우 사회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는 아니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통계조사에 포함된 자료이다. 따라서 이 영역의 지표구성은 <표 5-16>과 같이 모두 5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5-16> 가족 영역 지표 구성안

지표	지표설명	자료출처	주기
1인가구비율	-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가구로 구성된 가구비율 · $(1\text{인가구수}/\text{전체가구수}) \times 100$	인구주택 총조사	5년
조이혼율	-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 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값 · $(\text{연간이혼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인구동태 통계	1년
조출생률	-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서 1년간 총 출생아수를 당해연도의 총인 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값 · $(\text{연간출생아수}/\text{총인구}) \times 1,000$	인구동태 통계	1년
가족관계 만족도	- 가족생활전반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값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 조사	4년
소년소녀가장 가구비율	-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가구비율 · $(\text{소년소녀가장 가구수}/\text{전체가구수}) \times 100$	보건복지 통계연보	1년

‘경제’ 영역은 물질적인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영역으로 경제적 능력에 대한 부분이다. 이 영역은 기존의 거의 모든 연구에서 다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1인당 GDP와 월평균소득과 같은 지표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UNDP, 2006; 김신영 외, 2006; EIU, 2005; 이현송, 1997).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소득과 소비부문은 모두 46개의 지표로 소득과 소비생활, 저축, 소득분배 등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경제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1인당 GDP, 1인당 GNI, 저축률, 부채가구 비율 등의 지표와, 소득분배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도시·농가의 소득비율, 소득 집중도 등의 지표를 구성하였다. 소득분배나 형평에 관련된 지표의 경우, 이현송(1997)에서는 형평이라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

〈표 5-17〉 경제 영역 지표 구성안

지표	지표설명	자료출처	주기
1인당 GDP	- GDP를 총인구로 나눈 값 · 경상GDP/연앙인구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1년
1인당 GNI	- GNI를 총인구로 나눈 값 · 경상GNI/연앙인구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1년
도시/농가의 평균소득비율	- 농촌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것 · (농가월평균소득/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00	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1년
총저축률	- 국민총가처분소득 중 소비되지 않고 남는 부분 · (총저축/국민총가처분소득)×10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년
부채가구 비율	- 현재 부채가 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함 ·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	사회통계조사	3년
소득집중도 (지니계수)	- 소득불평등의 척도로 지니계수로 측정함 · 지니계수(0은 완전균등분배, 1은 완전 불균등분배를 뜻함)	가계조사	1년
소득만족도	- 본인의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함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4년
소비생활 만족도	-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함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4년

다. 상대적 박탈감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지표라 생각된다. 그리고 경제 영역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의 지표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영역의 지표구성은 <표 5-17>과 같이 모두 8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직업’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주당 근로시간, 노동환경 등을 지표로 포함하고 있다(EIU, 2005; Chan et al., 2005; 김명소 외, 2003; 이현송, 1997). 또한 Helliwell (2006)에 따르면, 작업환경과 직업만족도는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노동부문은 모두 35개의 지표로 고용, 근로조건, 안전, 주관적인 의식에 대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직업안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는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지표와, 근로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 근로여건 만족도 등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영역은 <표 5-18>과 같이 모두 5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5-18> 직업 영역 지표 구성안

지표	지표설명	자료출처	주기
경제활동참가율	-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text{경제활동인구}/15\text{세이상인구}) \times 100$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실업률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주당 근로시간	- 상용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주당 평균 근로시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	1년
월평균 근로일수	- 상용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 · 월평균 근로일수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	1년
근로여건 만족도	- 업무, 인사, 임금, 복리후생, 장래성, 근무환경, 인간관계, 근로시간, 성희롱방지 노력 등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를 5점척도로 측정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4년

‘교육’과 관련된 지표는 선행연구에서 교육기회, 문맹률, 기초능력, 교육의 질, 교육성취, 취학률, 교사1인당 학생수 등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UNDP,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이현송, 1997).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교육부문은 모두 39개 지표로 교육자원, 교육수준, 교육기회, 교육만족도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자원과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교사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건물면적, 컴퓨터 1대당

〈표 5-19〉 교육 영역 지표 구성안

지표	지표설명	자료출처	주기
평균 교육연수	- 6세 이상 인구 중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연수임 · 국민의 총교육연수/(만6세이상인구수-학생수)	인구주택 총조사	5년
대학진학률	-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전문대학 등에 진학한 비율 · (진학학생수/졸업생수)×100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1년
교육기회의 충족도	- 15세 이상 인구 중 재학생·재수생을 제외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함 · 교육기회 충족자 비율	사회통계조사	4년
교원1인당 학생수	- 학생수당 전임교사 이상인 재직교원수 · 총학생수/총교원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1년
학생1인당 건물면적	- 학생수당 건물의 면적 · 총건물면적/총학생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1년
컴퓨터 1대당 학생수	- 교육정보화 여건 및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여건을 확인하는 대표적 지표임 · 총학생수/총컴퓨터대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1년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납입금, 교과서대금, 보충교육비, 잡부금 등이 포함됨 · (연간교육비/연간소비지출)×100	가계조사연보/농가경제통계	1년
교육비 부담률에 대한 인식	- 교육비에 대한 부담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함 ·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4년
학교생활 만족도	-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교육내용, 학교시설,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주변환경 등에 대해서 만족도를 5점척도로 조사함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4년

학생수의 지표로 구성하였고, 교육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평균 교육연수와 대학진학률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대학진학률의 경우 선행 연구들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학진학률 지표를 이용하였다. 교육기회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교육기회의 충족도, 교육비 지출률,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등의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추가로 학교생활 만족도 지표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교육영역의 지표 구성은 <표 5-19>와 같이 모두 9개 지표로 구성된다.

‘건강’ 영역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지표들은 주로 평균수명(기대수명), 자가진단 건강상태, 우울증 비율, 비만, 건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의사 1인당 인구비율, 스트레스 등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UNDP, 2006; Marks et al.,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EIU, 2005; Chan et al., 2005; 김명소 외, 2003; 이현송, 1997). 특히나 기대수명은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로, Veenhoven(2005)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대수명과 주관적 행복도만을 사용하였다⁷⁾.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보건부문은 모두 4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개인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기대수명⁸⁾,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비만율, 유병률의 지표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1인당 의사수, 10만명당 병상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건강 영역의 지표구성은 <표 5-20>과 같이 모두 8개 지표로 구성된다.

‘주거’ 영역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지표들은 주택공급률, 주택구매비율, 전세지수 등 주거와 주거환경 관련 지표들이다⁹⁾(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Chan et al., 2005). 이 영역의 지표는 모두 45개 지표로 주택보급이나 주거의 질, 주거상황, 교통의 질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주택보급과 주거 및 거주지의 질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구성하였다. 주택보급을 알아보기 위

7) Happy-Life-Years = 기대수명 × 주관적인 행복감.

8) 기대수명 지표는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인구부문에 포함되는 지표임.

9)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주거와 교통이 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교통과 관련된 지표는 교통시설보다는 교통안전 쪽 지표들이 많은 관계로 안전영역에 포함시켰다.

<표 5-20> 건강 영역 지표 구성안

지표	지표설명	자료출처	주기
주관적 건강평가	- 개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함 ·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3년
스트레스인식 정도	-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4점척도로 측정함 ·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4년
비만율	- 신장과 체중으로 계산하는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비율 ·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자/전체 대상자)×1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4년
유병률	- 지난 2주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팠던 경험의 여부를 조사함 · 아프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4년
기대수명	- 연령대별로 이후 몇 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는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연수 ·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의 기대수명	생명표	1년
1인당 의사수	- 인구당 의사수 · 총인구/의사수(physicians)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년
인구10만명당 종합병원 병상수	- 인구10만명당 종합병원 병상수 · (종합병원병상수/인구수)×100,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 3년 전과 비교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변화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 ·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3년

해서는 보통 주택보급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주택보급률은 2002년 이후 10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지표에서는 제외하였고, 도시주택 가격지수 지표를 사용하였다. 주거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만족도, 1인당 주거면적, 방당 거주인수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거주지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도 지표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주거 영역의 지표 구성은 <표 5-21>과 같이 모두 5개 지표로 구성된다.

〈표 5-21〉 주거 영역 지표 구성안

지표	지표설명	자료출처	주기
도시주택 가격지수	- 도시 주택의 가격변화에 대한 측정 · 전년대비 도시주택가격의 변화지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년
주택에 대한 만족도	-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 도를 5점 척도로 측정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3년
1인당 주거면적	- 국민 1인당 사용 주거면적의 변화 를 파악 · 총주거면적/총인구	인구주택총조사	5년
방당 거주인수	- 주택수에 비하여 가구규모의 차이 까지 고려한 지표임 · 총가구원수/총사용방수	인구주택총조사	5년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 도를 5점척도로 측정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3년

‘안전’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선행연구에서는 밤거리의 안전도, 교통사고나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도, 치안문제, 범죄율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Chan et al., 2005).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안전에 대한 평가, 범죄,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 등의 4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범죄와 교통사고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범죄발생건수, 강력범죄비율,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지표로 구성하였고, 따라서 이 안전 영역의 지표는 <표 5-22>와 같이 모두 7개이다.

‘환경’ 영역은 최근 들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영역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공기와 물의 오염정도, 숲, 토양, 재활용, 이산화탄소배출, 소음 등의 지표들이 사용되었다(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Chan et al., 2005).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환경 영역은 환경오염, 환경상태, 환경관리와 관련된 44개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현재의 오염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각 부분의 오

<표 5-22> 안전 영역 지표 구성안

지표	지표설명	자료출처	주기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사회안전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건축물, 교통, 식품·의약품, 정보보안에 대한 안전의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함 ·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4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평소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 ·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	사회통계조사	4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 집 근처에 야간보행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곳이 있는지 여부 조사 · 야간보행이 두렵다고 느끼는 비율	사회통계조사	4년
범죄발생건수	- 총범죄발생건수 · 형법범죄와 특별범죄 발생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강력범죄비율	- 형법범죄 중 강력범죄 발생비율 · (강력범죄건수/형법범죄건수)×100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년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 살고 있는 지역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3년

염도와 시민들의 체감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등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환경 영역의 지표는 <표 5-23>과 같이 모두 7개 지표로 구성된다.

‘문화와 여가’ 영역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포함되었던 영역으로, 시간사용과 관련된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영역이다. 선행연구에 포함되었던 지표들은 여가시간, 시간사용에 대한 결정권, 문화시설, 여가활동 및 시설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김신영 외,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김명소 외, 2003).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문화와 여가 영역은 문화시설, 문화산업, 문화활동,

〈표 5-23〉 환경 영역 지표 구성안

지표	지표설명	자료출처	주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연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측정하는 지표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
대기오염도	- 아황산가스의 오염정도 · 아황산가스 수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
수질오염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측정 · 강 하류의 BOD 수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
해수오염도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으로 측정 · 평균 COD 수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1년
오존 오염도	- 주요도시의 오존 오염도를 측정 · 평균 오존오염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 1년 전과 비교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녹지 등의 변화에 대한 체감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 ·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4년
소음공해도	- 주요도시의 소음을 환경기준치를 중심으로 구분한 평균 소음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

문화의식에 대한 3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문화시설과 여가활용의 측면에서 지표를 구성해보면, 문화시설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수와 관련된 지표와, 여가활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인식, 예술행사수, 여가활용 만족도, 평균 여가시간,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문화와 여가 영역은 <표 5-24>와 같이 모두 9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은 정부신뢰, 사회참여, 사회신뢰 등에 관한 영역으로, 행복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역이다. 선행연구에 포함되었던 지표들은 정치적 안정성, 정치적 자유, 사람들 사이의 신뢰, 소속감, 사회참여, 봉사활동, 투명한 행정, 사회적 활동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EIU, 2005; 김명소 외, 2003). 이 중에서 한국의 사회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부와 사회참여에 대한 측정을 위주로 구성하였

<표 5-24> 문화와 여가 영역 지표 구성안

지표	지표설명	자료출처	주기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3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문화, 여가 생활의 변화에 대한 인식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3년
문화예술시설수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수의 합계	문화관광부	1년
영화관 스크린수	- 영화관이 보유한 스크린 수를 의미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1년
도서관 열람석수	-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좌석수를 의미함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1년
예술행사수	- 예술행사는 음악, 연극, 공연, 국악, 미술전시회 등을 의미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연감	1년
여가활용 만족도	- 여가활용의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4년
평균 여가시간	-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교제 및 여가 활동 시간으로 치환하여 계산함 · 평균 여가시간	생활시간조사	5년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 생활시간이 부족한지에 대한 태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함 ·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생활시간조사	5년
공공체육시설수	- 공공체육시설(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수영장)의 수	문화관광부, 체육시설현황	1년

다. 정부에 대한 신뢰의 측정을 위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로, 사회참여와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참여율, 자원봉사자 비율, 종교활동 참여도, 사회이동의 가능성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은 <표 5-25>와 같이 모두 5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 영역은 전체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다른 영역보다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지 않아서 추가 지표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사회적 관계는 선행연구들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만큼(Diener,

2007; Dolan et al., 2006; Helliwell, 2006; Lambert, 2005; Veenhoven, 2005; Donnelly, 2004), 이와 관련된 추가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구성된 전체 행복지수의 지표 구성안은 10개 영역의 68개 지표이다.

〈표 5-25〉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 지표 구성안

지표	지표설명	자료출처	주기
사회단체 참여율	-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참여여부를 조사함 · 참여경험이 있는 비율	사회통계조사	3년
자원봉사자 비율	-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여부를 조사함 ·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	사회통계조사	3년
종교활동 참여도	-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함 ·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	사회통계조사	3년
사회이동의 가능성	- 노력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 ·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3년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지난 1년 중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5점척도로 측정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통계조사	3년

3. 지표의 타당도 검토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지수의 지표를 구성해 보았다. 최종적인 지표개발을 위해서는 구성된 지표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표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통계적 분석방법은 주로 요인분석이나 주성분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김신영 외, 2006; Lau et al., 2005; 이현송, 1997; Diener et al., 1985). 주성분분석은 각 영역별 지표들의 요인부하값을 그 지표가 하나의 주성

분에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도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원리를 기초로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요인들을 그 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로 구성한다¹⁰⁾.

지표구성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은 지표개발 과정이나 지표의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조사나 전문가 회의(Focus Group)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전문가 의견조사는 지표구성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이를 종합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각 영역별로 개별 지표들의 타당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각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그 영역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정도나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정영근·이준, 2003). 다른 하나는 계층분석 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으로 영역별 각 지표들 간의 상대비교를 통해서 지표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김정인·권오재, 2004; 최영출, 2004; 자치정보화지원재단·행정자치부, 2001). 이 방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지표의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조사방법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지표안을 구성하거나 지표들의 가중치를 결정한다.

전문가 회의(Focus Group)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영역 구성이나 영역별 지표구성에 관한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전문가 회의는 전문가 의견조사보다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반면에 좀 더 세부적인 의견과 서로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두 방법은 어느 것이 더 적절하다기보다는 연구과정에서 두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구성된 행복지수의 지표안은 전체 10개 영역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객관적 지표의 경우는 자료의 출처가 매우 다양하고, 주관적 지표들의 경우는 스트레스 인식정도와 평균 여가시간 지표¹¹⁾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통계조사 자료이다¹²⁾. 앞

10) 이현승(1997)에서는 요인부하값이 1이 넘거나 이에 근접하는 요인들을 선택하였고, Lau et al.(2005)에서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Diener et al.(1985)에서는 0.6 이상을 기준으로 지표들을 선택하였다.

에서 검토하였듯이, 구성된 지표들은 다양한 자료의 출처와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료 구축연도도 서로 틀리고, 자료구축 누적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자료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측정값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표들 간의 구축연도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의 누적기간이 짧은 지표¹³⁾들이 포함되어 있어 값의 표준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는 측정값이 없는 연도의 추정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전체 자료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표의 타당도를 검토해 보고자 하며¹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지표 구성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¹⁵⁾와 통계개발원 내부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7월 6일~7월 1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외부 전문가의 경우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성된 지표안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지표에 대한 타당한 정도를 7점척도로 측정하였고(1점: 전혀 타당하지 않음 ~ 7점: 매우 타당함), 전체적인 지표구성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표 참고).

11) 스트레스 인식정도 지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이고, 평균 여가시간 지표는 생활시간조사 자료이다.

12) 사회통계조사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분야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몇몇 분야별로 구축연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조사된 항목이 아닐 경우 비교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13) 사회통계조사 자료인 주관적 지표들의 경우는 자료의 단위가 3년이며, 보통 1998년부터 시작되어 누적된 횟수가 2~3개 연도에 불과하다.

14) 이러한 방식은 타당도의 기준 중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에 해당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논리적 사고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주관적 타당도로, 각 항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15) 통계개발원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소수의 선택된 전문가들에 의한 결과이므로 그 결과가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편적인 의견으로 지표를 구성함으로써 지표의 타당도를 검토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결과의 분석은 지표들 간의 타당도를 측정된 응답자들의 평균 값과 표준편차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평균값을 비교해 본 후 일정 수준 이하의 평균값을 갖는 지표들은 재검토 후 지표구성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조사라 응답분량이 많지 않았다. 내부의 경우 10부가 설문완료 되었고, 외부는 13부가 완료되어 전체 23부의 설문내용을 받을 수 있었다¹⁶⁾. 조사에 응답한 외부 전문가들은 주로 통계학이나 사회 관련 전공 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이 조사는 통계 분석을 위한 조사가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조사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사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준편차의 값이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표의 타당도에 대한 의견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에서 표준편차가 낮게 나타나 객관적 지표보다 주관적인 만족도에 관련된 지표들을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표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개별의견들은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지표의 타당도 판단기준은 우선적으로 타당한 정도에 대한 지표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족 영역과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을 제외

16) 외부의 경우 전체 60명 중 13명에게서 응답을 받아 21.66%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는 27명 중 10명에게서 응답을 받아 37.03%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 다른 영역별 평균값은 모두 5점 이상이고, 전체 평균값이 5.36으로 나타나 5점 미만인 지표를 그 영역에서 타당도가 낮은 지표로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 영역에서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는 지표들의 경우 이들 중 하나만 남기고 지표구성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신규지표 자료를 검토하여 지표안을 완성하였다.

각 영역별로 지표들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가족 영역의 경우 1인가구비율과 조출생률 지표의 평균값이 각각 3.48과 3.52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별의견에서 이 지표들은 행복보다는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된 지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 영역에서는 이 두 지표를 제외하였다.

경제 영역에서는 도시·농가의 평균소득비율과 총저축률 지표의 평균이 5점 이하로(각각 4.13, 4.52) 타당도가 낮게 나타나 영역구성에서 제외되었다. 부채가구 비율의 평균값은 5.17점으로 나타났으나, 부채가구에는 생계형뿐 아닌 투자형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외하였다. 1인당 GDP와 1인당 GNI는 비슷한 의미의 지표이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지표구성에서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인당 GDP 지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UNDP, 2006; EIU, 2005; Hagerty & Veenhoven, 2003). 그리고 소비생활을 알아보기 위해서 생활물가지수를 지표에 추가하였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중 일반 소비자들의 기본 생필품 156개를 선정하여 계산한 물가지수로 장바구니에 더 근접한 물가지수이다.

직업 영역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주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일수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지표로서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업률보다 응답자의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 제외되었다(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평균값은 각각 5.30, 6.13임). 주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일수는 비슷한 평균값을 보였으나(각각 5.04, 4.96), 주당 근로시간이 근무시간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지표라는 의견이 있어서 월평균 근로일수를 제외하였다.

교육 영역에서 교육연수와 대학진학률은 평균값이 4.52와 4.57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지표들은 연령별 차이를 제외하고는 현재 별

의미가 없는 지표라는 의견이 많아서 제외하였다. 학생1인당 건물면적, 컴퓨터1대당 학생수의 지표들 또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각각 4.61, 4.00) 제외하였다. 그리고 교육비 지출률과 교육비 부담률의 지표는 비슷한 내용을 측정하는 지표로, 교육비 지출률보다는 부담정도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평균값도 부담률이 더 높게 나타나 교육비 지출률 지표를 제외하였다(교육비 지출률과 부담률의 평균값은 각각 5.09, 6.04임).

건강 영역에서 10만명당 병상수 지표의 평균값은 4.83으로 낮게 나타나 지표 구성에서 제외되었고, 1인당 의료인력수의 경우 평균값은 5.22로 나타났지만, 개별의견들 중 행복측정에 있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외하였다. 비만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이 4.96으로 낮게 나타나 제외하였다. 기대수명의 경우 평균값이 5.22로 다른 지표들에 비해 낮으며 표준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므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자살률은 우울증 등의 정신적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Diener, 2007; Veenhoven, 2005)에서도 행복과 관련이 높은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표구성에 포함하였다¹⁷⁾.

주거 영역에서 1인당 주거면적과 방당 거주인수 지표는 각자의 주거 공간을 나타내는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두 지표의 평균값은 각각 5.00, 5.22로 다른 지표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개 지표 중 평균값이 낮고 표준편차가 큰(1.23) 1인당 주거면적 지표를 제외하였다.

환경 영역은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지표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환경 영역의 경우 도시와 비도시 간의 차이가 커서 전체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연도별로 비교를 할 경우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점차 더 중요시되는 영역이라 판단하였다. 구성된 지표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오존오염도는 대기오염과 유사하며, 해수오염도는 수질오염도와 유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표 중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는 대기오염(5.74)과 수질오염(5.70) 지표만 사용하였다.

17) 자살률 산식: (자살자수/만5세이상 인구수) × 100,000.

안전 영역에서 범죄발생과 강력범죄발생건수는 평균값은 높게 나타났으나(각각 6.05, 5.95) 유사한 지표이기 때문에 두 지표 중 평균값이 낮은 강력범죄발생건수 지표를 제외하였다.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지표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지표와 유사하여 제외되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단순한 발생건수보다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지표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변경하였다. 그리고 화재발생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아 화재발생건수 지표를 추가하였다.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지표는 평균값이 4.81로 다른 지표보다 낮게 나타나 제외되었다. 문화시설과 관련된 지표들인 영화관 스크린수, 도서관 열람석수는 평균값이 5점 이하로 낮게 나타난데다(각각 4.00, 4.05) 문화예술시설수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제외하였다. 예술행사수 지표도 평균값이 4.71로 낮게 나타나 제외하였다.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은 측정방식이 불분명하고, 여가활용만족도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외하였다.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전체적으로 평균값이 낮고, 표준편차도 높게 나타났다. 이 영역은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정부 또는 사회신뢰와 관련된 지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종교활동 참여도는 평균값이 3.95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활동은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부분으로 행복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외하였다. 사회단체 참여율 지표도 평균값이 4.43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도 높게 나타난 지표이다. 그러나 현재 구축할 수 있는 지표 중 사회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고, 이 영역에서 필요한 지표라 생각되어 포함하였다. 이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지표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라 생각된다.

전체적인 의견을 보면, 사회에 대한 신뢰, 정치에 대한 만족, 정부기관에 대한 만족 등에 대한 지표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영역별로 지표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는 지표구성에 있어서 ‘한국의 사회지표’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 행복지수의 지표구성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지표체계는 전체 10개 영역의 43개 지표로 구성되었다(표 5-26 참고).

이들 지표는 처음부터 ‘한국의 사회지표’ 안에서 구성된 지표로 지표 구성에 있어서 매우 한정적일 수 있으며,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에 구축된 지표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각 영역별로 포함되는 지표들이 부족하거나 개인에 따라서는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역 구성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포함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지표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표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주로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과 관련된 지표들이다. 사회관계나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 또는 자유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내용이다(Diener, 2007; Dolan et al., 2006; Helliwell, 2006; Lambert, 2005; Veenhoven, 2005; Donnelly, 2004). 현재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의 지표들에는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나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지표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표들의 추가 구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공원이거나 근린시설 관련 지표와 장애인, 여성, 노인과 관련된 지표도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4. 지수산출 방법 검토

가. 지수산출 방법 사례

지수란 물가나 임금 등과 같은 형상의 변동을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하여 일정한 때를 기준하여 비교하는 숫자로 정의할 수 있다. 지수는 단일한 통계계열을 비교하는 개별지수와 다수의 통계계열을 비교하는 종합지수로 나눌 수 있다. 종합지수는 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각 요소를 동등한 단위로 취급하여 가중치를 주지 않는 단순지수와, 각

〈표 5-26〉 행복지수의 지표 구성(전체 43개)

영역	지표	자료출처	주기
가족 (3)	조이혼율	인구동태통계	1년(80-05)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6	4년(98,02,06)
	소년소녀가장 가구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년(95-05)
경제 (5)	1인당 GDP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1년(81-05)
	소득집중도(지니계수)	가계조사	1년(98-05)
	소득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3	4년(99,03)
	소비생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3	4년(99,03)
직업 (3)	생활물가지수	통계청, 물가연보	1년(00-06)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81-06)
	주당 근로시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1년(85,90,95,00-05)
교육 (4)	근로여건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6	4년(98,02,06)
	교육기회의 충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4년(00,04)
	교원1인당 학생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1년(85,90,95,00-06)
	교육비 부담률에 대한 인식*	사회통계조사 2004	4년(00,04)
건강 (6)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4년(00,04)
	주관적 건강평가*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03,06)
	스트레스 인식정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4년(01,05)
	유병률*	사회통계조사 2006	4년(95,99,03,06)
	기대수명	생명표	1년(01-05)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사회통계조사 2005	3년(98,02,05)
주거 (4)	자살률	사망원인통계	1년(95-05)
	도시주택가격지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년(92-06)
	주택에 대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3년(97,01,04)
	방당 거주인수	인구주택총조사	5년(80-05)
환경 (4)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3년(97,01,04)
	대기오염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99-05)
	수질오염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99-05)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사회통계조사 2005	4년(97,01,05)
안전 (6)	소음공해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02-05)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사회통계조사 2005	4년(97,01,05)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회통계조사 2005	4년(97,01,05)
	범죄발생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82-05)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수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년(82-05)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3년(97,01,04)
문화와 여가 (4)	화재발생건수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	1년(82-05)
	문화예술회관시설수	문화관광부	1년(95-05)
	여가활용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4년(00,04)
	평균 여가시간*	생활시간조사	5년(99,04)
정부와 사회참여 (4)	공공체육시설수	문화관광부, 체육시설현황	1년(96-05)
	사회단체참여율*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03,06)
	자원봉사자 비율*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03,06)
	사회이동의 가능성*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03,06)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03,06)

주: * 표시된 지표는 주관적 평가 항목임.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는 가중지수로 구분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이러한 지수의 산출 방식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에서 적용하는 종합지수 산출방법은 개별지표의 표준화와 종합지표의 산출을 통해서 지수화를 하고 있다(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개별지표의 표준화는 시계열과 지역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계열은 기준년을 100으로 하여 증가율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지역별은 전국 평균을 50으로 하는 편차치 방식에 따라 표준화하는 방식이다. 종합지수의 산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수화를 위해서 변동의 폭, 구축단위 등이 다른 다수의 개별지표를 종합화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지표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여야 한다. 표준화지수는 기준연도인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각 연도별 변화율 절대치의 평균이 1이 되도록 표준화하고, 기준년을 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산정한다. 개별지표의 표준화방법은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대칭변화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지표가 실제 수치일 경우와 구성비 동일 경우 다른 계산식을 적용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대칭변화율을 이용하여 전체 연도의 표준화인자를 구하는 단계이고, 세 번째는 대칭변화율에 표준화인자를 나누어 줌으로써 표준화 변화율을 구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표준화 지수를 산출하는 단계로 기준연도를 100으로 한 표준화 변화율을 이용하여 표준화지수를 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도 실제수치와 구성비의 경우는 다른 계산식을 적용하게 된다(표 5-27 참조).

개별지표들의 표준화 지수를 구하고 나서 개별지수들을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지표들의 방향성을 판단해야 한다. 즉, 그 지표의 상승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플러스, 나쁘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마이너스로 한다. 마이너스 지표의 경우 표준화 지수를 200에서 뺀 값으로 구하게 된다. 이렇게 방향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나면 개별지표들의 단순평균이 종합지수가 된다.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표준화 지수에 곱하게 되고, 이것의 평균값이 종합지수가 된다.

〈표 5-27〉 개별지표의 단계별 표준화 산출방법

단계	산식
1단계: 대칭변화율 산출 D: 개별지표 t : 시점	실제수치: $C_{i(t)} = \frac{D_{i(t)} - D_{i(t-1)}}{D_{i(t)} + D_{i(t-1)}} \times 100$ 구성비율: $C_{i(t)} = D_{i(t)} - D_{i(t-1)}$
2단계: 표준화인자의 산출 N: 표준화기간의 시점수	$A_i = \frac{\sum_{t=2}^N C_{i(t)} }{N-1}$
3단계: 표준화 변화율	$B_{i(t)} = \frac{C_{i(t)}}{A_i}$
4단계: 표준화 지수의 산출	실제수치: $S_{i(t)} = S_{i(t-1)} \times \frac{200 + B_{i(t)}}{200 - B_{i(t)}}$ 구성비율: $S_{i(t)} = S_{i(t-1)} + B_{i(t)}$

2) 삶의 질 지수의 산출(이광국·정하영, 2004)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는 4단계를 거쳐서 표준화 지수를 산출한 것에 비해서 이광국·정하영(2004)에서는 삶의 질 지수의 선정에 있어서 z-score 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상이한 변수들을 전체적 분포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라는 동일척도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산식은 아래와 같다.

$$QOL = \sum z_{ij} \quad z_{ij} = \frac{(x_{ij} - x_i)}{\delta_i}$$

여기에서 x_{ij} 는 j년도 i변수의 조사값, x_i 는 i변수의 평균치이다. 이 값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준 것이 z_{ij} 로 j년도 i변수의 값이다. 이러한 영역별 표준화값의 평균으로 각 영역의 지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3) 홍콩의 삶의 질 지수(Chan et al., 2005)

홍콩의 삶의 질 지수의 계산방식은 연도별 변화율로 지수값을 계산하였다. 2002년을 기준으로 전체 21개 삶의 질 지표의 합계값을 100으로 계산함에 따라, 각각의 지표들은 가중치 없이 모두 4.76의 값을 가지게 된다($100/21=4.76$). 이러한 값을 기준으로 각 연도의 실제값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4.76에 그 변화율을 곱한 것이 개별 지표값이 되고, 그러한 지표값들의 전체 합이 그 해의 삶의 질 지수가 된다.

예를 들면, 실업률 지표의 경우 2002년은 7.34, 2003년은 8.13일 때의 계산방식은 다음의 두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text{첫 번째 : } (8.13 - 7.34)/7.34 = 10.76\%$$

$$\text{두 번째 : } 4.76 \times (1 - 10.76\%) = 4.25$$

위의 식에 따라 2003년 실업률 지표는 4.25의 값을 가지게 된다. 지표의 방향성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 식 밑줄 친 부분의 부호가 바뀌게 된다. 부정적인 지표일 경우 1에서 변화량을 빼고, 긍정적인 지표는 1에 변화량을 더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된 각 지표들의 합이 그 해의 전체 삶의 질 지수가 된다. 따라서 전체 삶의 질 지수가 100보다 증가했을 경우는 2002년보다 나아진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2002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평가된다(Chan et al., 2005).

4) 서울서베이 연구(서울특별시, 2005)

서울서베이 연구(서울특별시, 2005)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영역별 값을 계산하고 있다. 1999년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연도의 값을 1로 놓고, 기준값에 변화량을 곱하여 각 연도의 값을 측정하여 연도별 변화의 방향과 정도를 비교한다. 서울서베이 도시지표의 경우는 전체 합계값이 아닌 각 영역별 평균값을 측정하여 기준연도의 값 1에서 어느 정도 증감하고 있는지의 방향성을 측정하고 있다.

홍콩과 서울시 두 사례의 지수값 계산은 각 지표들의 변화율로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표들의 단위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준연도를 언제로 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기

준연도의 값이 이상치일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변화량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또한 전체 합계값이나 평균값을 이용할 때의 문제점은 하나의 지표에서 큰 변화량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전체값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해석상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어떤 지표의 변화율이 100%일 경우 다른 지표가 전체적으로 나빠졌더라도 평균값이나 합계값은 좋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도별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지표들은 이러한 지수계산이나 구성에 있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나. 지수 산출 가능성 검토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지표들의 자료 구축연도가 동일하여야 한다. 시계열 비교를 위해서나 또는 한 해의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들의 구축연도가 일정해야 한다. 둘째, 지표들 간의 자료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단위의 표준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준화 계산을 위해서는 각 지표별로 축적된 자료가 어느 정도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다. 셋째, 가중치 부여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구성한 지표들의 경우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토대로 하여 구성된 지표이다.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의 사회지표는 매년 발행되는 통계이지만 세부지표들은 자료의 출처도 다양하고 주기도 다양하다. 그리고 주관적 지표들의 경우는 축적된 연도가 2년 또는 3년밖에 되지 않고, 각 지표별로 구축된 연도가 서로 다르다. 지표들의 이러한 구축정도는 지수산출 과정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료의 축적연도가 길지 않고, 각 지표별로 구축연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연도에 대해서 추정치를 사용한다거나, 표준화과정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개별 값들의 연도별 변화율을 통해서 지수값을 측정하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는 지표구성에 있어 지수산출이 가능한, 즉 자료 축적기간이 길거나, 축적기간이 짧은 경우는 동일한 연도의 자료를 가지는 지표로 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앞으로의 추가 연구를 위한 기

초연구로, 가능한 지표로 지수를 산출하는 것보다는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는 것에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행복지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지표로 지수를 산출하는 것보다는, 관련 지표들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지수산출 과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행복지수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문헌연구를 통해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행복지수의 지표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물질적 측면이 아닌 정신적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행복 측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SBS에서 주관한 「제4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행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형 행복지수 개발의 필요성과 이를 정책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SBS, 2006).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는 행복지수의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지표구성에 있어서 시계열적인 비교를 염두에 두고 지표를 검토하였다.

행복이란 주관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측정은 주관적인 측정보다 비교가능성이 높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즉, 객관적 지표를 사용할 경우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적 지표보다 더 보편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행복을 물질적인 삶, 주관적인 감정, 만족감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삶의 물질적 조건과 더불어 개인들의 만족감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웰빙이나 삶의 질과 유사한 의미로 행복 개념을 사용하였다.

지표개발에 있어서는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가 행복과 관련된 지표를 모두 포함한다고 가정할 순 없지만, 현재의 사회구조, 삶의 질, 사회상태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기존에 구축된 자료들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정확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지표구성에 있어서 완벽한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단기간에 지표구축 가능성을 검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 안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표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10개 영역의 68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는 장단점 파악을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며, 기존의 많은 검증과 연구를 거친 자료를 활용하면서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구성된 지표체계에 대한 타당도 검토를 위해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10개 영역의 43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구성에서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된 지표가 행복을 측정하는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영역구성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가능한 지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전체 10개 영역은 ‘한국의 사회지표’의 13개 영역 중에서 인구, 정보통신, 복지 부분을 제외하고 구성된 영역이다. 인구 영역은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광범위한 부분일 수 있다. 정보통신 영역은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미 일정수준 이상을 도달하여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영역이다. 복지 영역은 광범위한 부분으로 전체 영역에 걸쳐서 고루 포함될 수 있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 제외되었다. 그러나 복지 영역의 경우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성평등성이나 저소득층·사회적 약자(장애인, 여성, 노인 등)와 관련된 지표구성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표구축 단계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추가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에 포함되어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은 서로 동일하지 않은 영역으로 정부·정치 영역과 사회참여나 사회관계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성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영역은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지표들의 추가 개발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 연구에서의 한계점은 첫 번째로 단기간에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자료를 ‘한국의 사회지표’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사회의 전반을 보여주는 지표체계이긴 하지만, 행복을 측정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외되는 지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기존 자료를 사용하는 데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단점은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 간에 구성내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한정된 수준에서 지표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장점은 이미 구축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지표로서 검증된 자료로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구축연도가 통일되지 않아서 통계분석적인 지표의 타당도 검토와 지수 계산 과정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 활용이 가능한 지표들로만 재구성을 하거나, 주관적 지표로 조사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구성되는 지표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후자의 경우는 이를 위해 새로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의 연구과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행복이란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닌 정신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정책적인 목적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행복지수의 지표구성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기초연구로서 선행연구들의 내용 검토를 통해서 기존에 구축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지표구성을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요소

에 대해서는 사람들 간의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정확하고 타당도가 높은 지표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행복의 측정을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가 아니므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많은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행복에 대한 정의가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측정에 있어 타당도가 높은 지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수는 그 값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가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비교 가능한 지표를 구성하여야 하고, 지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표들의 표준화와 통합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여러 분야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의 구성에 있어서는 관련 정책부처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지표개발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표구성에 있어서는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에 대한 적당한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가능성이 높은 지표구성을 위해서 비교 가능한 지표들만으로 구성하면 지표에 제한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비교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반되는 것에 대한 적당한 균형점을 가지고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하)」, 두산동아.
- 김명소·김혜원·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pp.19-40.
- 김명소·김혜원·차경호·임지영·한영석(2004),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pp.35-62.
- 김명소·김혜원·한영석·임지영(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2(2), pp.1-33.
- 김명소·한영석(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개발”, 「조사연구」, 7(2), pp.1-38.
- 김신영·이경상·백혜정·이가영(2006), 「한국 청소년 행복·역량 지수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정인·권오재(2004), “계층분석법을 이용한 환경성과정보지표의 개발”, 「자원·환경경제연구」, 13(1), pp.1-32.
- 박종민·김서용(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기준”, 「아세아연구」, 45(2), pp.141-164.
- 서울특별시(2005), 「2005 서울서베이」.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복지재단(2006), 「세계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 서은국(2007), “우리 사회 행복의 현주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의 재발견」,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7. 5. 18.
- 이광국·정하영(2004), “삶의 질 지수와 적정인구규모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자치구단위를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22, pp.137-151.

- 이현송(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여름호), pp.269-301.
- 자치정보화지원재단·행정자치부(2001), 「2000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 측정」.
- 정영근·이준(200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조영호(2003),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 비교문화적 고찰",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5, pp.229-283.
- 최영출(2004), "지역의 사회자본측정치표 설정", 「지방정부연구」, 8(3), pp.109-114.
- 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통계청.
- 현경자(2004),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과 주제에 대한 종단적 탐색", 「정신보건과 사회산업」, 18, pp.60-100.
- SBS(2006),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제4차 미래한국리포트」, 2006. 2. 15(http://future.sbs.co.kr/aboutreport_4.html).
- 경향신문(2007.4.18), "덴마크, EU서 가장 행복".
- 한국일보(2006.7.28), "행복은 부자순이 아니죠".
- 한국일보(2006.3.13), "하버드대 최고 인기강좌는 행복론".
- 한국일보(2005.10.5), "GNP 대신 GNH(국민총행복).. 부탄의 행복국가론".
- Boarini, R., A. Johansson, and M. M. Ercole(2006), *Alternative Measure of Well-Being*,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prs, OECD.
- Camp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 pp.117-124.
- Chan, Y. K., C. A Kwan and T. D. Shek(2005), "Quality of Life in Hong Kong: The CUHK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71, pp.259-289.
- Choe, Y.(2007), "Europe vs Korea: What Makes the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between Them?", *Assessing*

Happiness and Competitiveness of World Major Metropolises (2007.1.19),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Cooke, M.(2005), *The First Nations Community Well-being Index(CWB): A conceptual review*, Indian and Northern Affairs Canada.

Diener, E., R. Emmons, R. J. Larsen, and S. Griffin(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pp.71-75.

Diener, E., E. Suh, R. Lucas, and H. Smith(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pp.276-302.

Diener, E.(2007), "Happiness Accounts for Policy Use",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s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2-3 April 2007.

Dolan, P.(2007), "Cost-happiness Analysis: a new and improved form of economic appraisal?",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s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2-3 April 2007.

Dolan, P., T. Peasgood, and M. White(2006), *Review of Research on the Influences on Personal Well-being and Application to Policy Making*, UK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onnelly, S.(2004), "How Bhutan Can Measure and Develop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Development*, The Centre for Bhutan Studies.

EIU(200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Quality-of-life Index", *The World in 2005*, Economist Intelligence Unit.

Hagerty, M. R., R. A. Cummins, A. L. Ferriss, K. Land, A. C. Michalos, M. Peterson, A. Sharpe, J. Sirgy and J. Vogel(2001), "Quality of Life Indexes for National Policy: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1), pp.1-96.

Hagerty, M. R. and R. Veenhoven(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 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pp.1-27.

- Helliwell, J. F.(2006), "Well-be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What's New?", *Economic Journal*, 116, pp.34-35.
- Hoorn, A. V.(2007), "A Short Introduction to Subjective Well-being: Its measurement correlates and policy uses",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s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2-3 April 2007.
- Kahneman, D. and A. B. Krueger(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pp.3-24.
- Lambert, J.(2005), "The Economics of Happiness", *Canadian Business Investor*, 500, pp.184-187.
- Lau, A., R. A. Cummins and W. McPherson(2005), "An Investigation into the Cross-cultural Equivalence of the Personal Well-being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72(3), pp.403-430.
- Marks, N., S. Abdallah, A. Simms, and S. Thompson(2006), *The Happy Planet Index*, NEF: New Economics Foundation.
- Osburg, L.(2004), "The Relevance of Objective Indicators of Well-Being for Public Policy",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Economics Association*(2004.6.5).
- Rothwell, C. and P. Cohen(2003), "Happiness Report - Happiness Is No Laughing Matter", from <http://www.petecohen.com/microsites/happiness/index.html>.
- Royo, M. G. and J. Velazco(2005),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Objec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rural Thailand", *Capabilities and Happiness Conference*(2005.6.16-18).
- Shackman, G., Y. Liu, and X. Wang(2005), "Measuring Quality of Life Using Free and Public Domain Data", *Social Research*, UPDATA.
- 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2007), *Canadian Index of Wellbeing : Measuring what matters*, The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 Trewin, D.(2001), *Measuring Wellbeing*,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UNDP(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UNDP.
- Veenhoven, R.(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pp.33-45.
- Veenhoven, R.(2005), "Apparent Quality-Of-Life in Nations: How long and happy people l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1, pp.61-86.
- Veenhoven, R.(2007), "Measures of Gross National Happiness",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s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2-3 April 2007.
- WHO(1997), *WHOQOL - Measuring Quality of Life*, WHO. "Happy Danes Are Here Again." from [http://admin.cam.ac.uk/news/dp/2007041701\(2007.4.17\)](http://admin.cam.ac.uk/news/dp/2007041701(2007.4.17)).

< 부 록 >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부표 5-1〉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

영역	지표	평균	표준편차
가족 (5)	1인가구비율	3.48	1.83
	조이혼율	5.61	1.50
	조출생률	3.52	1.59
	가족관계 만족도	6.70	0.56
	소년소녀가장 가구수	5.39	1.78
경제 (8)	1인당 GDP	5.13	1.36
	1인당 GNI	5.13	1.39
	도시/농가의 평균소득비율	4.13	1.69
	총저축률	4.52	1.47
	부채가구 비율	5.17	1.56
	소득집중도(지니계수)	5.65	1.67
	소득만족도	6.26	0.75
직업 (5)	소비생활 만족도	6.09	0.90
	경제활동참가율	5.30	1.43
	실업률	6.13	1.01
	주당 근로시간	5.04	1.15
	월평균 근로일수	4.96	1.30
교육 (9)	근로여건 만족도	6.48	0.67
	평균교육연수	4.52	1.47
	대학진학률	4.57	1.50
	교육기회의 충족도	6.61	0.50
	교원1인당 학생수	5.09	1.73
	학생1인당 건물면적	4.61	1.78
	컴퓨터 1대당 학생수	4.00	1.86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5.09	1.93
	교육비 부담률에 대한 인식	6.04	1.11
건강 (8)	학교생활 만족도	6.17	1.30
	주관적 건강평가	6.09	0.90
	스트레스 인식정도	6.04	0.88
	비만율	4.96	1.52
	유병률	5.52	1.38
기대수명	5.22	1.73	

<부표 5-1> 계속

영역	지표	평균	표준편차
건강 (8)	1인당 의료인력수	5.22	1.51
	인구10만명당 병상수	4.83	1.77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5.52	1.47
주거 (5)	도시주택가격지수	5.48	1.62
	주택에 대한 만족도	6.30	0.70
	1인당 주거면적	5.00	1.23
	방당 거주인수	5.22	1.20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6.22	0.74
환경 (7)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	5.04	1.69
	대기오염도	5.74	1.39
	수질오염도	5.70	1.33
	해수오염도	5.26	1.42
	오존 오염도	5.52	1.34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6.22	1.04
	소음공해도	6.00	1.17
안전 (7)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6.29	0.7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6.19	0.60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5.57	1.36
	범죄발생건수	6.05	1.00
	강력범죄비율	5.95	1.10
	교통사고 발생건수	5.45	1.32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5.86	1.01
문화와 여가 (9)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5.57	1.50
	문화예술시설수	5.24	1.45
	영화관 스크린수	4.00	1.58
	도서관 열람석수	4.05	1.63
	예술행사수	4.71	1.52
	여가활용 만족도	6.24	0.70
	평균 여가시간	5.86	1.06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4.81	1.25
	공공체육시설수	5.38	0.86
정부와 사회참여 (5)	사회단체참여율	4.43	1.89
	자원봉사자 비율	5.33	1.39
	종교활동 참여도	3.95	1.66
	사회이동의 가능성	5.81	1.21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5.29	1.68

〈부표 5-2〉 영역별 개별의견 정리

영역	개별 의견
가 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비율은 행복측정 요인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과 연관 •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 조손가구, 미혼모출산비율, 가정폭력건수, 가족동거율, 노인복지시설, 결혼에 대한 태도 등의 지표가 추가될 필요 있음
경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가구가 반드시 경제적 궁핍을 의미하지 않음 • GDP와 GNI는 유사한 지표로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 소비자물가지수나 생활물가지수 지표 추가 필요 • 도시/농가의 평균소득비율은 행복측정 지표로 타당하지 않음
직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 다양성을 보기 위한 지표로 총 직업수 지표 추가 • 다른 직업군에 대한 지표도 필요함(자영업자, 주부, 장애인 등) • 10인 이상 사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도에서 문제 있음 • 재해사망률, 학력/직업간 임금수준 격차, 고용안정성의 지표 추가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률이나 교육연수는 고등교육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 의미 없는 지표임 • 건물면적이나 컴퓨터 등의 시설지표는 정부의 투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지표 추가 필요
진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용에 대한 지표로 가구지출 대비 의료비용 또는 의료비용절대치 등의 지표, 규칙적 운동 실천율, 전염성 질병 관련 지표 추가 • 1인당 의사수나 병상수 지표는 양적인 개념으로 무의미함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지표는 항목의 구체적인 개발 필요
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역 만족도와 주택만족도 항목의 경우 항목의 세분화가 필요 • 1인당 주거면적이 의미하는 사회적 함의가 세대마다 다를 수 있음 • 무주택가구비율, 주거비용, 전월세가격 등의 지표 추가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지표는 의미가 있으나 도시와 비도시 간의 환경여건의 차이가 커서 전체 평균이 의미 없을 수도 있음 •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표는 행복과 관련해서는 타당하지 않음 • 먹는 물의 수질현황, 1인당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환경오염 방지 노력 등의 지표 추가 • 폐기물재활용, 토양오염도, 상수도, 하수도 등의 지표 추가
안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질서나 법준수, 공중도덕에 대한 질문도 필요 • 화재발생률, 안전사고 발생률, 119출동건수 등의 지표 추가 필요 • 교통사고 발생건수 지표의 경우는 경미한 사고도 포함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발생건수가 더 의미 있음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청소년 범죄자, 경찰관1인당 인구수 등의 지표 추가 필요
문화와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련 지표와 더불어 이용도, 이용경험에 대한 지표 필요 • 시설수 관련 지표들은 적절한 구성을 통해 하나의 지표로 재구성 •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의 경우 여가활용만족도와 유사함 • 녹지공간, 공원시설, 오락시설 관련 변수 필요
정부와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단체 참여율, 자원봉사자 비율, 종교활동은 행복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보임 • 투표율, 공공서비스 지수, 정부기관의 인지도 관련 지표 추가 필요

2.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표

◆ 행복지수 지표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안녕하십니까?

통계개발원에서는 행복지수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본 조사는 행복지수의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각 영역별 지표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입니다.

지표의 초안은 전체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5~10개 사이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별 지표는 기존에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의 사회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 중에서 구성하였습니다.

각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을 검토하신 후, 지표가 해당 영역의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한국의 사회지표> 참고).

설문지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메일로 7.17(화)까지 보내주시십시오. 본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황명진 · 심수진

전화)042-717-0237

팩스)042-717-0253

shimsjll@nso.go.kr

1. 가족 영역

가족 영역에는 모두 5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해당 영역에서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아래의 표를 보시고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보통	매우 타당함		
1	2	3	4	5	6	7

지표	지표설명	타당한 정도
1인가구비율	-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가구로 구성된 가구비율 · (1인가구수/전체가구수) × 100	
조이혼율	-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값 · (연간이혼건수/연앙인구) × 1,000	
조출생률	-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 총 출생아 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값 · (연간출생아수/연앙인구) × 1,000	
가족관계 만족도	- 가족생활전반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한 값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소년·소녀가장 가구비율	-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가구 · (소년소녀가장 가구수/전체가구수) × 100	
※ 이 외에도 가족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표나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2. 경제 영역

경제 영역에는 모두 8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해당 영역에서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아래의 표를 보시고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보통	매우 타당함		
1	2	3	4	5	6	7

지표	지표설명	타당한 정도
1인당 GDP	- GDP를 연앙인구로 나눈 값 · 경상GDP/연앙인구	
1인당 GNI	- GNI를 연앙인구로 나눈 값 · 경상GNI/연앙인구	
도시/농가의 평균소득비율	- 농촌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것 · (농가월평균소득/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 100	
총저축률	- 국민총가처분소득 중 소비되지 않고 남는 부분 · (총저축/국민총가처분소득) × 100	
부채가구 비율	- 현재 부채가 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함 ·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	
소득집중도 (지니계수)	- 소득불평등의 척도로 지니계수로 측정함 · 0은 완전균등분배, 1은 완전 불균등분배를 뜻함	
소득만족도	- 본인의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5점척도로 측정함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소비생활 만족도	-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5점척도로 측정함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p>※ 이 외에도 경제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표나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p>		

3. 직업 영역

직업 영역에는 모두 5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해당 영역에서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아래의 표를 보시고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보통	매우 타당함		
1	2	3	4	5	6	7

지표	지표설명	타당한 정도
경제활동 참가율	- 만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경제활동인구/만15세 이상 인구) × 100	
실업률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주당 근로시간	- 상용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	- 상용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	
근로여건 만족도	- 업무, 인사, 임금, 복리후생, 장래성, 근무환경, 인간관계, 근로시간, 성희롱방지노력 등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를 5점척도로 측정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 이 외에도 직업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표나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4. 교육 영역

교육 영역에는 모두 9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해당 영역에서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아래의 표를 보시고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보통	매우 타당함		
1	2	3	4	5	6	7

지표	지표설명	타당한 정도
평균교육연수	- 6세 이상 인구 중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 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연수임 · 국민의 총교육연수/(만6세이상인구수·학생수)	
대학진학률	-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전문대학 등에 진학한 비율 · (진학생수/졸업생수)×100	
교육기회의 충족도	- 15세 이상 인구 중 재학생·재수생을 제외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함. · 교육기회 충족자 비율	
교원인당 학생수	- 총학생수/총교원수	
학생인당 건물면적	- 총건물면적/총학생수	
컴퓨터 1대당 학생수	- 교육정보화 여건 및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여건을 확인하는 대표적 지표임 · 총학생수/총컴퓨터대수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교육비에는 납입금, 교과서, 보충교육, 잡부금 등이 포함됨 · (연간교육비/연간소비지출)×100	
교육비 부담률에 대한 인식	- 교육비에 대한 부담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함 ·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학교생활만족도	-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교육내용, 학교시설,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주변환경 등에 대해서 만족도를 5점척도로 조사함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 이 외에도 교육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표나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5. 건강 영역

건강 영역에는 모두 8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해당 영역에서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아래의 표를 보시고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보통	매우 타당함		
1	2	3	4	5	6	7

지표	지표설명	타당한 정도
주관적 건강평가	- 개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5점척도로 측정함 ·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	
스트레스 인식정도	-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4점척도로 측정함 ·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비만율	- 신장과 체중으로 계산하는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비율 ·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자/전체대상자) × 100	
유병률	- 지난 2주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팠던 경험의 여부를 조사함 · 아프다고 응답한 비율	
기대수명	- 연령대별로 이후 몇 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는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연수 ·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의 기대수명	
1인당 의사수	- 의사수(physicians)/총인구	
인구10만명당 종합병원 병상수	- (종합병원병상수/인구수)×100,000	
보건의료서비스 에 대한 인식	- 3년 전과 비교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변화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 ·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	
<p>※ 이 외에도 건강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표나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p>		

6. 주거 영역

주거 영역에는 모두 5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해당 영역에서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아래의 표를 보시고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보통	매우 타당함		
1	2	3	4	5	6	7

지표	지표설명	타당한 정도
도시주택가격지수	- 전년대비 도시주택가격의 변화지수	
주택에 대한 만족도	-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5점척도로 측정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1인당 주거면적	- 국민 1인당 사용 주거면적의 변화를 파악 · 총주거면적/총인구	
방당 거주인수	- 총가구원수/총사용방수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5점척도로 측정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p>※ 이 외에도 주거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표나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p>		

7. 환경 영역

환경 영역에는 모두 7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해당 영역에서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아래의 표를 보시고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보통	매우 타당함		
1	2	3	4	5	6	7

지표	지표설명	타당한 정도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	- 연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측정하는 지표임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기오염도	- 아황산가스의 오염정도 · 아황산가스 수치	
수질오염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측정 · 강 하류의 BOD 수치	
해수오염도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으로 측정 · 평균 COD 수치	
오존 오염도	- 주요도시의 오존 오염도를 측정 · 평균 오존오염도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 1년 전과 비교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녹지 등의 변화에 대한 체감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 ·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	
소음공해도	- 주요도시의 소음을 환경기준치를 중심으로 구 분함 · 평균 소음도	
※ 이 외에도 환경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표나 전반적인 의견 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8. 안전 영역

안전 영역에는 모두 7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해당 영역에서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아래의 표를 보시고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보통	매우 타당함		
1	2	3	4	5	6	7

지표	지표설명	타당한 정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사회안전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건축물, 교통, 식품/의약품, 정보보안에 대한 안전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함 ·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평소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함 ·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 집근처에 야간보행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곳이 있는지 여부 조사 · 야간보행이 두렵다고 느끼는 비율	
범죄발생건수	- 인구십만명당 총 범죄발생건수 · (형법범죄와 특별범죄 발생건수/인구수) × 100,000	
강력범죄비율	- 형법범죄 중 강력범죄 발생비율 · (강력범죄건수/형법범죄건수) × 100	
교통사고 발생건수	- 인구십만명당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인구수) × 100,000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 살고 있는 지역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p>※ 이 외에도 안전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표나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p>		

9. 문화와 여가 영역

문화와 여가 영역에는 모두 9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해당 영역에서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아래의 표를 보시고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보통	매우 타당함		
1	2	3	4	5	6	7

지표	지표설명	타당한 정도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3년 전과 비교하여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인식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 ·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	
문화예술시설수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수의 합계	
영화관 스크린수	- 영화관이 보유한 스크린 수	
도서관 열람석수	-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좌석수	
예술행사수	- 음악, 연극, 공연, 국악, 미술전시회수	
여가활용 만족도	- 여가활용의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평균 여가시간	- 하루 평균 여가시간으로 교체 및 여가활동 시간으로 치환하여 계산함 · 평균 여가시간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 생활시간이 부족한지에 대한 태도를 4점척도로 질문함 ·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공공체육시설수	- 공공체육시설(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수영장)의 수	
※ 이 외에도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표나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10.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에는 모두 5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해당 영역에서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아래의 표를 보시고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보통	매우 타당함		
1	2	3	4	5	6	7

지표	지표설명	타당한 정도
사회단체참여율	-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참여여부를 조사함 · 참여경험이 있는 비율	
자원봉사자 비율	-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여부를 조사함 ·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	
종교활동 참여도	-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함 ·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	
사회이동의 가능성	- 노력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 ·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지난 1년 중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5점척도로 측정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p>※ 이 외에도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표나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p>		

11. 기타 추가하여야 할 영역과 지표

위의 10개 영역들은 “한국의 사회지표” 13개 영역 중에서 10개 영역을 선택하여 구성한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추가로 필요한 영역이나 지표에 대해서, 또는 삭제가 필요한 영역과 행복지수의 지표개발에 대해서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전문가 의견조사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